

## 국기에 깃든 사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람홍색공화국기에는 국기도안사업을 몸소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다.

주체 37(1948)년 1 월 어느날 일군들이 올린 국기도안을 보아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국기의 색깔을 붉은색, 흰색, 푸른색으로 하니 좋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지금 국기도안은 붉은색, 흰색, 푸른색의 비율이 합리적이 못된다고, 공화국기의 중간부분은 붉은색을 기본바탕으로 하고 우와 아래부분은 흰색과 푸른색이 각각 대칭되게 하는것이 좋겠다고, 흰색과 푸른색의 폭을 지금보다 가늘게 하면서도 잘 나타나게 하여야 한다고 국기도안의 근본방향뿐아니라 거기에 담아야 할 사상적내용과 그 표현방도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일깨워주시였다.

잠시 일군들을 둘러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러면 이것을 놓고 좀 의견을 나누어보자고 하시며 여러장의 국기도안을 펼쳐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그리신 국기도안이었던것이다.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국기의 길이와 너비의 비례도 잘 맞추고 흰 동그라미의 위치도 지금처럼 중심에 놓지 말고 기발대쪽으로 가져 가는것이 좋겠다고, 동그라미안에는 오각별을 그려넣는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이렇듯 람홍색공화국기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세심한 령도의 손길이 뜨겁게 어리여있다.